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보도자료
[본부장 : 남인순 · 박홍근 의원]

■보도시점 : 배포즉시 ■배포 : 2025.5.28(수) ■담당 : 유경선 팀장 010-8730-3314

[보도자료]

직능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100만명 초과
민주당 대통령 선거운동 견인!
-역대 대선 중 최대 지지선언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본부가 보건의료·복지, 문화·예술·체육, 민생·산업경제, 건설·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 정책협약, 더 나아가 지지선언을 함께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5월 28일(수) 현재 직능본부는 정책협약 130회, 지지선언 108회, 누적 지지선언 112만명을 초과해,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 지지 선언을 기록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밝힌 것은 광주 지역 한의사 97명이다. 한편, 민주당의 험지라 불리는 경남 물리치료사 5600여명, 대구, 경북과 경남의 한의사 279명 등 보건의료인과 다양한 직능인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단체 중 장애인 가족은 5월 16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세종, 울, 경남·경북 등 권역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갔으며 5월 28일 서울에서 최다 지지자 선언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3년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여주었다.

장애인가족은 이 후보가 제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복지 자립기반 확충 ▲통합교육 기반 강화 ▲고용 기반 조성 등 5대 공약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를 선언하며, “이번 대선은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직능본부가 민주당 대통령 선거 운동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과 직능단체와 조직이 상시적으로 정책을 제안 받고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 준 전국직능대표자회의의 구성과 활동이 있었다. 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2017년 구성된 이래 당의 조직으로 다양한 직능단체와 정책, 입법, 예산에서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100회를 넘는 지지선언, 112만명 직능인들의 선택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미래를 살릴 유일한 후보라는 방증"이라고 밝히며 "이재명 후보는 이 거대한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직능본부 활동에 함께 해주신 박홍근 본부장, 임오경·정일영 수석부본부장, 김남근·김윤·송재봉·이병진·허성무·전재진·김완수·최영찬·김문호·이범현·박권수 부본부장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 직능본부의 훈훈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박홍근 본부장은 "각계각층 직능인들의 지지선언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어진 것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과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대선 이후에도 직능단체와 체결한 정책협약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챙겨, 직능인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이번 100만 지지선언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임업인 ▲산림기술자 ▲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AI기업인 ▲영유아 교사 ▲환경공무원 ▲방사선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장애인가족 ▲체육대학 교수·강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미용사 ▲영양사 ▲사진작가 ▲속기사 ▲안경사 ▲문화예술인 ▲피부미용사 ▲대중가요인 ▲상담사 ▲가맹점주 ▲개인택시사업자 ▲전·현직축구 리더 ▲국가대표 및 메달리스트 ▲택견인 ▲속기인 ▲농수산물상인 ▲학원관계자 ▲유튜브 종사자 등 다양

한 직능인이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능인의 지지 선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끝

【붙임 1】



사진(위): 5.8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아래)5.28 전국 장애인 가족 기자회견

